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28년 만에 육류 수출 최고 실적 달성

2025년 5월 13일/ 산타카타리나 정부/ 브라질.
<https://www.agricultura.sc.gov.br>

2025년 5월 15일 (어제)

올해 첫 4개월 동안 산타카타리나 주는 지난 28년 만에 육류 수출에서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67만 7,600톤의 육류(닭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오리고기, 청둥오리고기, 소고기 등)를 수출하여 14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2024년 동기 대비 물량 7.3%, 매출 16.2% 증가를 의미하며, 산타카타리나 주는 국내 육류 수출의 주요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만 산타카타리나는 179,100톤을 수출했고, 3억 9,8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가치 측면에서 2024년 10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월별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개발, 산업, 무역 및 서비스부(MDIC)에서 발표하고 사회경제 및 농업 계획 센터(Epagri/Cepa)에서 수집했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 카를로스 키오디니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해당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산타카타리나가 돼지고기의 주요 국가 수출지이자 닭고기의 두 번째로 큰 수출지로서의 잠재력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돼지고기의 기록적인 성과

4월 산타카타리나는 64,700톤의 돼지고기를 수출하여 1억 5,58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3월 대비 물량 10.9%, 금액 8.5%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4년 4월 대비로는 각각 7.1%, 12.4% 증가했습니다. 이는 1997년 이후 역대 최고치이며, 물량과 매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산타카타리나는 지난 4개월 동안 240,300톤의 돼지고기를 출하했고, 매출은 5억 7,91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7%와 1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시장은 일본(매출의 20.5%), 중국(19.5%), 필리핀(19.3%)이었습니다. 일본은 산타카타리나에서 구매한 돼지고기가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하여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산타카타리나는 이 기간 브라질 수출 물량의 53.6%, 매출의 54%를 차지하며 해당 부문에서 여전히 국내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